

윤리적 디자인의 관점에서 호주 애보리지널 아트를 활용한 텍스타일 패턴디자인 협업 사례 연구

Ethical Design Perspectives on Textile Pattern Design Collaborations with Australian Aboriginal Art

주 저 자 : 이은옥 (Lee, Eun Oak)

덕성여자대학교 텍스타일디자인전공 교수
haleolea@duksung.ac.kr

<https://doi.org/10.46248/kidsr.2025.4.663>

접수일 2025. 11. 16. / 심사완료일 2025. 11. 28. / 게재확정일 2025. 12. 08. / 게재일 2025. 12. 30.
본 논문은 2024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 되었습니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how ethical design principles are practiced in textile pattern design collaborations utilizing Australian Aboriginal art. Focusing on the Indigenous Art Code (IAC), the research compares corporate and public-sector collaborations to identify how institutional ethics are applied in practice. The findings reveal that corporate collaborations adopt a participatory ethical model emphasizing creative autonomy, while public-sector projects demonstrate an accountability-based model grounded in institutional trust and public responsibility. Both models share the principles of community autonomy, transparent contracting, and fair benefit sharing as foundations of ethical design practice. Based on these insights, the study proposes five practical guidelines for ethical collaboration; prior consent and transparency, fair contracting and benefit sharing, respect for cultural interpretation, sustainable relationship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cultural ethics. Applying the IAC as an analytical framework,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establishing an ethical framework for culturally sustainable textile design.

Keyword

Ethical Design(윤리적 디자인), Indigenous Art Code(예술행동강령), Aboriginal art(애보리지널 아트), Textile Pattern Design Collaboration(텍스타일 패턴디자인 협업)

요약

본 연구는 윤리적 디자인의 관점에서 호주 애보리지널 아트를 활용한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 협업을 분석하여, 디자인이 문화적 존중과 사회적 책임의 원칙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고찰하였다. 호주 원주민 예술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협업 구조를 비교한 결과, 기업 협업은 창의적 자율성과 실험성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윤리 모델을, 공공기관 협업은 제도적 신뢰와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책임 기반 모델을 실현하였다. 두 유형 모두 공동체의 자율성 존중, 투명한 계약, 공정한 수익 분배의 원칙을 공유하며 윤리적 디자인의 실천 사례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사전 동의와 투명성, 공정한 계약과 수익 분배, 문화적 해석의 존중, 지속 가능한 관계, 문화윤리의 제도화 및 교육적 확산의 다섯 가지 윤리적 협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호주원주민예술행동강령을 분석틀로 적용해 문화 기반 디자인 협업을 평가할 수 있는 윤리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문제

2. 이론적 배경

- 2-1. 윤리적 디자인의 확장과 텍스타일 패턴디자인
- 2-2. 애보리지널 아트의 문화적 지위와 지식체계
- 2-3. 문화적 전유와 호주 원주민 예술 행동강령의 역할

3. 연구방법론

- 3-1. 연구설계
- 3-2. 사례분석 기준 및 내용
- 3-3. 분석대상

4. 사례 분석

- 4-1. 기업과의 협업 사례 분석
- 4-2. 공공기관과의 협업 사례 분석
- 4-3. 사례 비교 및 논의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21세기 섬유-패션 산업은 독창성, 지속가능성, 지역성을 핵심 가치로 삼으며, 지역의 전통 문양과 원주민 예술을 디자인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자산의 상업적 이용은 원작자의 동의 부재, 불공정한 수익 구조, 문화적 맥락 왜곡 등 윤리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문화적 전유(文化的 專有)는 저작권 침해와 불법 문화 상품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적 존중을 기반으로 한 윤리적 디자인과 원작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협업 모델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호주의 애보리지널 아트는 윤리적 디자인의 실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애보리지널 아트는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제도 주민의 지식, 신앙, 역사를 시각화한 문화체계¹⁾로, 이를 텍스타일 디자인에 활용하는 과정은 협업의 윤리성과 제도적 보호의 문제를 드러낸다. 특히 텍스타일 패턴디자인은 상업적 전환 과정에서 문화적 전유로 인한 윤리 문제가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산업 분야이다.

애보리지널 아트에 대한 선행연구는 마이어(Myers, 2008), 강재원(2013), 한선주(2006), 이연숙(2022) 등이 원주민 정책, 예술사, 문화 상징, 식민주의 비판 담론의 맥락에서 진행해왔다. 하지만 디자인 실천과정, 특히 텍스타일 디자인 협업과 윤리적 디자인 원칙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문화담론 중심의 연구를 넘어, 호주 원주민 예술 행동강령(Indigenous Art Code, 이하 IAC)을 분석틀로 하여 협업 구조, 권리 보호, 수익 분배, 디자인 해석, 사회·문화적 영향의 측면에서 윤리적 디자인의 원칙이 실제 협업 과정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텍스타일 산업 내 문화적 지속가능성과 책임 있는 디자인 실천 과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디자이너, 기업, 정책 입안자를 위해 윤리적 협업을 위한 실천적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SH 갤러리 서울, 애보리지널아트, Atgram, 2024.8.11.(2025. 11.12)
artgram.kr/art-event/sh-gallery-20240829-bf/

1-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1) 호주 원주민 예술 행동강령은 텍스타일 패턴디자인 협업 과정에서 어떤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는가?
- (2) 애보리지널 아트를 활용한 기업 및 공공기관의 협업 사례는 이러한 윤리적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 (3)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해 텍스타일 패턴디자인 분야의 윤리적 협업을 위한 실천적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윤리적 디자인의 확장 and 텍스타일 패턴디자인

디자인 윤리는 오랫동안 기능적 안전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빅터 파파넵(Victor Papanek)은 산업화 이후의 비윤리적 디자인을 비판하며, 디자인을 인간 존중과 사회적 책임의 실천 도구로 재정립할 것을 주장하였다²⁾. 그는 원주민 공동체의 생활양식과 비서구 문화의 가치에서 '모든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가능성을 보았으며³⁾, 이는 이후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윤리적 디자인 논의의 기초가 되었다.

21세기 들어 디자인 윤리는 환경적·사회적 차원을 넘어 문화적 윤리와 인식론적 정의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에스코바(Escobar)는 디자인을 '무엇을 만드는가가 아닌 '누구와 어떻게 만드는가의 관계적 실천으로 정의하며, 다양한 세계관이 공존하는 존재론적 디자인을 제안하였다⁴⁾. 이는 디자인을 문화 간 관계 조정의 과정으로 바라보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또한

- 2) 강병석, '경제적 개념으로서의 사회적 디자인 고찰', 한국디자인포럼, 2010. 02, Vol.26, p.227
- 3) 남미경, '디자인에 있어 지속가능성의 의미와 빅터 파파넵 디자인 사상의 영향 분석',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09. 12., Vol.15(4), p.192
- 4) Escobar A, 『Designs for the Pluriverse』, Duke University Press, 2018, pp.165-181 정리

툰스탈(Tunstall)은 서구 중심 디자인 지식체계로 부터의 탈식민화를 통해 원주민 공동체가 스스로 자신들의 문화적 표현을 통제할 권리를 주장하며, 디자인이 단순한 창작 행위가 아닌 문화적 주권과 공동 결정의 실천이어야 함을 강조했다⁵⁾.

특히 텍스타일 디자인은 패턴의 상징적 표현으로 인해 신성한 문화 상징이 소비재로 전환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윤리적 텍스타일 패턴디자인은 저작권 보호를 넘어, 문화적 의미의 관리와 공동체의 참여를 포함하는 책임있는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결국 윤리적 디자인은 결과물의 도덕성보다 관계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개념이며, 이는 애보리지널 아트를 활용한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 협업의 윤리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2-2. 애보리지널 아트의 문화적 지위와 지식 체계

애보리지널 아트는 호주의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제도 주민들이 창조한 예술 형식으로, 그 기원은 약 4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에는 동굴벽화와 암각화로 자연, 인간, 영적 세계의 관계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표현의 기반에는 공동체의 창조신화를 담은 드림타임(dreamtime)이 존재한다⁶⁾. 드림타임은 우주의 기원과 인간, 생명, 대지의 관계를 설명하는 신화적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며, 애보리지널 아트는 이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공동체적 지식체계로 기능한다⁷⁾.

따라서 애보리지널 아트는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승인과 전통법에 따라 생성되는 집단적 창작물이다. 각 작품은 특정 지역과 언어 그룹, 그리고 드림타임 이야기의 소유권에 근거하며, 그 의미와 사용은 공동체의 책임과 권리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므로 예술은 미적 표현을 넘어 공동체 정체성과 지식 전승의 핵심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텍스타일에 구현되는 애보리지널 패턴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땅의 기억과 조상의 서사를 담은 상징적 언어다. 따라서 이러한 패턴의 활용은 '시각적 차용'이 아니라 공동체 지식의 '시각적 번역'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원작 의미의 왜곡과 신성성 훼손을 방지하

는 것이 윤리적 디자인 실천의 핵심 과제이다.

2-3. 문화적 전유와 호주 원주민 예술행동강령의 역할

문화적 전유는 타문화의 예술과 상징을 맥락 없이 차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⁸⁾. 이는 문화 도용, 전용 등으로 불리며, 전통지식과 표현의 무단적 사용이 윤리적·법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국제 사회에서 전통지식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⁹⁾.

호주는 원주민 예술의 상업적 남용과 문화적 전유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IAC를 제정하였다. IAC는 자발적 산업 표준으로서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제도 예술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술의 거래와 활용이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침적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예술가, 예술센터, 기관, 기업이 준수해야 할 윤리 원칙과 모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원주민 예술의 문화적 정당성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로 기능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⁰⁾.

① 목적과 적용범위 : 원주민 예술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고, 위반 사항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문화 자산으로서의 존중과 신뢰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예술가, 예술기관, 상업·공공 부문 등 예술 유통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이며, 관련 법률이 강령보다 우선 적용된다.(관련 조항 1.1 1.2, 1.3, 1.4)

② 윤리 및 행동기준 문화권리 : 거래 당사자는 작품의 출처와 수익 배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원주민 공동체의 문화 절차와 신성한 관행을 존중해야 한다. 공동 소유된 문화 자산은 승인 없이 거래할 수 없고, 원작자가 직접 제작하지 않은 모방품이나 AI 생성물의 유통은 금지된다.(관련 조항 2.1, 2.2, 2.3, 3(a), 3(b)(iii))

③ 지적 재산권 및 출처표기 : 예술 작품은 예술가 개인의 저작권과 공동체의 문화·지식재산권(ICIP)¹¹⁾을

5) Tunstall A., 『Decolonizing Design』, The MIT Press, 2023, pp. 238-239

6) SH 갤러리 서울, 애보리지널아트, Atgram, 2024.8.11.(2025. 11.12) artgram.kr/art-event/sh-gallery-20240829-bf/

7) W. Gunn, T. Otto, R. Smith, 『Design Anthropology』, Routledge, 2020, p.241

8) 캡브리지 사전, Cultural appropriation. (2025.10.06), dictionary.cambridge.org/

9) 이세리, '현대패션에 제기된 문화적 전유', Archives of Design Research, 2019. 05., Vol.32(2), p.138

10) The Indigenous Art Code(2024.10.31.버전) 정리, indigenousartcode.org/storage/uploads/bb25a0cb-35c1-4d78-884c-f6f725127bcb/The-Indigenous-Art-Code.pdf

11) 최푸름, 원주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문단 설립 발표, 저작권동향, 2021. 06., Vol.11, p.28

포함한다. 모든 계약과 활용 매체에는 예술가명, 공동체명, 작품의 기원과 맥락을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복제사용 시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성하거나 공동권리가 있는 소재, 비원주민 또는 AI 생성물은 승인 없이 거래할 수 없다.(관련 조항 3(a), 3(b)(iii), 4.3(k,l), 4.3(m), 5.1(b)(iv), 5.1~5.2, 6.1(b)(ii))

④ 상업계약과 동의절차 : 예술가와 협력 주체 간의 계약은 모든 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수익 배분과 권리 보호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작품의 사용, 재해석, 확장 등 모든 상업적 활용은 예술가와 공동체의 사전 동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관련 조항 3(b)(iii), 4.1, 4.2, 4.2(a), 4.3, 4.5, 4.6)

⑤ 거래관리·증빙 및 규제 절차 : 모든 거래와 계약 과정은 문서로 기록, 보존되어야 하며,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강령위원회의 조사와 조정을 통해 해결한다. 강령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업계 윤리 기준으로 작동하며, 위반 시 자격 제한이나 공개 경고 등의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관련 조항 6.1, 6.1(a), 6.2, 6.3, 6.4, 6.5)

3. 연구방법론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호주 IAC가 텍스타일 패턴디자인 협업과정에서 윤리적 디자인의 제도적 기준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검토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IAC의 조항을 분석의 핵심 틀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협업 과정에서의 윤리적 실천행위를 평가하기 위한 5가지 윤리적 디자인 지표를 [표 1]과 같이 구성하였다.

이 지표는 IAC의 주요 항목과 보조적 근거로서 에스코바(2018)와 톤스탈(2023)의 이론, WIPO(2024)¹²⁾, 과 UNDRIP(2007)¹³⁾ 선언을 참조하여 도출되었으며, 구조-과정-결과의 관점에서 사례를 분석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텍스타일 패턴디자인 협업이 윤리적 가치와 제도적 기준을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양상을 고찰하고, IAC의 역할을 제도적 윤리 프레임워크로 도출하고자 한다.

12) 지적 재산권,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 지식에 관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조약(2024.05.24.) www.wipo.int/en/web/traditional-knowledge

13) UNDRIP 유엔 토착민권리 선언(2007.09.13.), www.un.org/development/desa/indigenouspeoples/wp-content/uploads/sites/19/2018/11/UNDRIP_E_web.pdf

[표 1] 윤리적 디자인 실천 지표와 IAC와의 관계

윤리적 디자인 지표	지표의 의미 및 IAC 연관성
협업 구조	협업이 공정하고 윤리적인 거래 구조 위에서 이루어졌는가 (IAC-목적·적용범위, 상업계약·동의절차)
권리 및 소유	예술가와 공동체의 권리 및 출처 표기가 명확히 이루어졌는가 (IAC-지적재산권·출처표기)
수익 및 이익 분배	계약 조건과 사용 동의 절차가 투명하고, 수익 구조가 명확히 정의되는가 (IAC-상업계약·동의절차, 거래관리·증빙·규제절차)
디자인 해석 및 표현	작품에 대한 공동체의 문화적 절차와 권리를 존중하였는가 (IAC-윤리 및 행동기준·문화권리, 상업계약·동의절차)
사회·문화적 영향	협업이 공동체와 사회에 미친 인식적 변화에 기여하는가 (IAC-목적·적용범위, 윤리 및 행동기준·문화권리)

3-2. 사례 분석 기준 및 내용

본 연구는 사례 분석의 구체적 기준으로 윤리적 디자인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각 분석기준에 따른 분석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분석기준 및 분석 내용

분석 기준	분석 내용
협업 구조	공동체의 참여 수준, 협의 절차 및 의사결정 구조
권리 및 소유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문화권리, 출처 명시
수익 및 이익 분배	디자인 수익의 분배 구조 및 관련 계약의 공정성
디자인 해석 및 표현	원작 의미와 상징의 존중, 재해석의 윤리성
사회·문화적영향	협업이 공동체와 사회에 미친 문화적·인식적 영향

3-3. 분석대상

본 연구는 호주 IAC의 윤리 원칙이 실제 협업 과정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가 명확하고 문화적 협업 구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례를 선정하였다. 사례는 수행 주체의 성격에 따라 기업 협업과 공공기관 협업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통해 윤리적 디자인이 산업적 맥락과 공공적 맥락에서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지리적·시간적 범위, 제품 유형을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지리적 범위는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제도 예술을 포함하는 협업 사례로 한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09년 IAC 시행 이후 이루어진 호주 내 협업으로 설정하였다. 제품 유형은 패브릭, 의류, 텍스타일, 인테리어 제품 등 텍스타일 디자인이 적용된 사례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 중 기업 보고서, 브랜드 및 원주민 예술센터의 공식 웹사이트, 언론 기사 등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되는 사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동일 제품군으로 인한 협업 방식의 평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서로 다른 제품 유형의 사례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4. 사례분석

4-1. 기업과의 협업 사례 분석

4-1-1. 킵앤코 x 바바라 여성센터¹⁴⁾

킵앤코(Kip&Co)는 지속가능성과 공정 거래를 핵심 가치로 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이며, 바바라(Bábarra) 여성센터는 지역의 드림타임 신화를 전통적 직물 프린트로 시각화해 온 공동체 예술 조직이다. 두 기관은 2020년 협업을 통해 텍스타일-홈웨어 컬렉션을 [그림 1]과 같이 출시하였다.



[그림 1] 킵앤코 x 바바라 홈 컬렉션¹⁵⁾

① 협업 구조 : 2년에 걸쳐 진행된 협업은 작품 선정부터 색상, 패턴, 구성, 제품 기획에 이르는 전 과정에 원주민 아티스트들의 의사결정을 반영하는 '공동 개발 모델'로 운영되었다.

② 권리 및 소유 : 카피라이트 에이전시(Copyright

14) 킵앤코, 바바라 여성센터, 카피라이트 에이전시 홈페이지 내용 정리, (2025.10.12.)
www.kipandco.com.au, www.babbarra.com, www.copyright.com.au

15) 킵앤코 홈페이지, (2025.10.12.)
kipandco.com.au/pages/kipco-x-babbarra

Agency)가 계약과정에 참여하여 IAC 최상위 모범사례를 구축하였다.¹⁶⁾ 아티스트에게 디자인 개발 과정의 핵심적 의사 결정권을 부여하고, 각 제품에는 아티스트명, 공동체명, 작품의 서사적 배경이 함께 명기되었다.

③ 수익 및 이익 분배 : 협업으로 발생한 모든 수익은 킵앤코와 바바라 센터가 각각 50대50으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구조로, 이는 원주민 공동체가 협업의 실질적 수혜자가 되는 공정거래 구조를 마련하였다.

④ 디자인 해석 및 표현 : 바바라 센터 아티스트들은 자신들의 문양이 가진 고유의 상징적 의미와 신성성을 직접 설명하고, 킵앤코는 단순화나 오용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자 아티스트와 공동체(바위닝가 원주민 협회 이사회 산하 예술문화 소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쳐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다.

⑤ 사회·문화적 영향 : 이 협업은 원주민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자신들의 예술을 상업화하고, 그 수익을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에 환원함으로써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켰다. 또한 킵앤코 제품을 통해 일반 대중이 원주민 예술을 윤리적·문화적 가치의 관점에서 인식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¹⁷⁾

4-1-2. 코스켈라 x 다수 원주민 예술센터¹⁸⁾¹⁹⁾

코스켈라(Koskela)는 호주 최초로 비공인증을 받은 가구 및 조명브랜드로, 유타 바다얄라(Yuta Badayala) 예술센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9개 이상의 원주민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예술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조명제품을 [그림 2]과 같이 출시하고 있다.

16) Copyright Agency, Kip&Co x Bábarra: a benchmark for a female-led Indigenous collaboration, 2020. 09., (2025.10.12.)
copyright.com.au/2020/09/kipco-babbarra-benchmark-collaboration/

17) Sally Tabart, A Landmark Collaboration Between Bábarra Women's Centre x Kip&Co, Design files, 2020.09.02. (2025.11.12.)
thedesignfiles.net/2020/09/shopping-kip-and-co-babbarra-womens-centre-collection

18) 코스켈라 홈페이지 내용 정리, (2025.10.12.)
www.koskela.com.au

19) Elcho Island (Galiwin'ku) artists, Mapuru, and Koskela, Artslaw, 2005.01., (2025.10.12.)
artslaw.com.au/case-studies/yuta-badayala-in-a-new-light-2/



[그림 2] 코스켈라 원주민 제작 조명 제품²⁰⁾

① 협업 구조 : 코스켈라가 조명제품의 틀을 설계하고, 각 원주민 센터 소속 장인들은 제조된 틀에 적합한 조명 갓을 지역 재료와 전통 직조방식으로 직접 제작하는 ‘공동 제작 모델’이다.

② 권리 및 소유 : 코스켈라의 모든 조명제품에는 조명 갓 창작자명 및 소속 센터를 표기하며,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조명 틀에 대한 저작권은 코스켈라, 조명 갓 직조물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으며, 제품 구매자에게는 창작자의 약력과 작품 스토리 등이 포함된 카탈로그가 전달된다.

③ 수익 및 이익 분배 : 코스켈라는 IAC에 서명한 회원기업으로 각 원주민 센터와 윤리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조명 갓 장인들이 연간 수입을 추정할 수 있도록 매년 제품 수량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장인들은 조명 갓 직조물의 크기와 품질에 따라 임금을 받으며, 코스켈라는 매출의 1%를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제도 공동체에 환원한다.

④ 디자인 해석 및 표현 : 코스켈라의 조명 갓은 원주민 장인이 직접 패턴을 직조하며, 코스켈라는 장인들의 창작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⑤ 사회·문화적 영향 : 이 협업은 원주민 전통 직조 기술을 현대 제품디자인에 적용하여 기술의 세대 간 전승을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하였다²¹⁾. 또한 장기적 협업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공동체에 환원해 장인들의 경제적 자립,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 강화와 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하였다.

4-1-3. 엔엔티유니폼 x 와를루쿠를랑구 센터²²⁾23)

20) 코스켈라 홈페이지, (2025.10.12.)
koskela.com.au/collections/social-impact-lamps

21) Koskela, Innovate Reconciliation Action Plan(2021.10-2023.10), 2024, p.4

22) 엔엔티 유니폼 홈페이지 정리, (2025.10.12.)
www.nnt.com.au

23) Phoebe Blogg, Warlukurlangu Art Centre collaborates with NNT Uniforms on Indigenous

엔엔티 유니폼(NNT Uniform)은 기업복, 의료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유니폼을 생산하는 브랜드로 2022년부터 와를루쿠를랑구(Warlukurlangu) 예술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원주민 컬렉션’ 제품을 [그림 3]과 같이 출시하고 있다.



[그림 3] 엔엔티 유니폼 원주민 컬렉션²⁴⁾

① 협업 구조 : 엔엔티 유니폼이 스크럽과 폴로 셔츠 등의 디자인 범위를 제시하고, 원주민 아티스트가 작품의 제공 및 패턴 디자인에 대한 최종 승인을 행사하는 ‘라이선싱 기반 모델’이다.

② 권리 및 소유 : IAC 서명단체인 와를루쿠를랑구 센터는 아티스트 작품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엔엔티는 이 작품의 공식 라이선스를 획득하였다. 원주민 컬렉션 제품에는 아티스트명, 작품정보, 작품스토리 등이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다.

③ 수익 및 이익 분배 : 라이선스를 받은 엔엔티 유니폼은 판매 수익금 일부를 와를루쿠를랑구 센터에 직접 전달한다. 전달되는 수익금 규모와 아티스트에게 전달되는 금액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센터는 작품 판매가의 50%를 아티스트에게 지급함을 홈페이지를 통해 명시하고 있다.

④ 디자인 해석 및 표현 : 엔엔티는 협업에 참여한 세 명의 아티스트 작품이 패턴디자인으로 재해석되는 과정에서 와를루쿠를랑구 센터와의 직접 협의를 통해 원작이 상품화 과정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조율하였다.

⑤ 사회·문화적 영향 : 이 협업은 유니폼을 통해 원주민 예술을 다양한 직장 환경으로 확산시켜 원주민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였다. 또한 직장 내 다양성과 포용성의 시각적 상징 표현으로 원주민 직원들에게는 문화적 정체성과 소속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designed uniforms, NNT, 2024.1.16., (2025.10.12.)
nit.com.au/16-01-2024/9310/warlukurlangu-art-centre-collaborates-with-nnt-uniforms-on-indigenous-designed-uniforms

24) 엔엔티 유니폼 홈페이지, (2025.10.12.)
nnt.com.au/products-indigenous-collections/?l=au

4-2. 공공기관과의 협업 사례 분석

4-2-1. 서호주미술관 x 이쿤티지 아트센터²⁵⁾²⁶⁾

서호주미술관(AGWA)은 퍼스에 위치한 공공미술기관이다. 원주민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2023년 이쿤티지(Ikuntji) 예술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쿠션 커버 컬렉션을 [그림 4]와 같이 출시하였다.



[그림 4] AGWA 쿠션 커버 컬렉션²⁷⁾

① 협업 구조 : 미술관이 기획과 유통을 담당하고, 이쿤티지 센터가 원주민 아티스트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품 개발과 제작을 총괄하는 ‘공동기획 모델’로 운영되었다. 미술관은 제작 과정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나, AGWA 라벨을 제품에 부착해 판매하였다.

② 권리 및 소유 : 모든 작품의 저작권이 작가에게 있으며, 이는 호주 저작권법(1968)에 따라 보호된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쿠션 커버 제품에는 작가명, 작품 정보, 작품 스토리를 상세히 표기하여 저작권과 문화적 출처를 명기하고 있다.

③ 수익 및 이익 분배 : 두 기관은 모두 IAC 서명 기관으로, 구체적인 수익 분배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술관은 원주민 아티스트와 공동체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협력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²⁸⁾. 이쿤티지 센터 또한 제품 판매 수익을 참여 작가에게 직접 지급함을 홈페이지를 통해 명기하고 있다²⁹⁾.

④ 디자인 해석 및 표현 : 이쿤티지 센터 소속 앨리스(Alice N. D.)와 케투라(Keturah Z.)의 작품은 퍼블리쉬 텍스타일(Publisher Textiles)을 통해 핸드 실크스

25) 서호주미술관 홈페이지 내용 정리, (2025.10.12.)
www.artgallery.wa.gov.au

26) AGWA, 2023-2024 AGWA Annual Report, 2025, pp.56-57

27) AGWA Design Store, (2025.10.12.)
designstore.artgallery.wa.gov.au/collections

28) AGWA, Ibid., p.23-24

29) 이쿤티지 예술센터 홈페이지, (2025.10.12.)
ikuntji.com.au/pages/faqs

린 방식으로 직물에 적용되며, 전 과정은 미술관의 개입 없이 센터 주도로 이루어졌다.

⑤ 사회·문화적 영향 : 공공미술관은 아티스트의 저작권과 창작 독립성을 보장하는 공정한 유통구조를 운영함으로써 공공플랫폼을 통한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또한, 미술관 전시는 원주민 예술을 일상적 소비와 교육의 영역으로 확장시켜 문화접근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4-2-2. 다윈 컨벤션센터 x 위냐 원주민 가구³⁰⁾

다윈(Darwin) 컨벤션센터는 호주 북부의 대표적인 공공시설로, 원주민 소유기업인 위냐(Winya)와의 협업을 통해 2023년 가구 리퍼브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위냐는 라라키아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컨벤션 센터 로비 가구의 패턴디자인을 [그림 5]와 같이 개발하였다.



[그림 5] 다윈 컨벤션센터 로비 가구

① 협업 구조 : 공공기관의 발주, 원주민 기업의 직물 디자인 개발 및 생산, 원주민 아티스트의 작품 참여로 진행된 공공조달 기반의 ‘공동기획 모델’이다.

② 권리 및 소유 : 완성된 가구의 소유권은 다윈 센터에, 가구 디자인의 저작권은 위냐에, 직물의 패턴디자인 저작권은 원주민 아티스트에게 각각 귀속된다. 아티스트는 위냐에 패턴디자인에 대한 한정적 라이선스를 부여하나, 이 외 용도로는 자유로운 사용권리를 유지한다.

③ 수익 및 이익 분배 : 위냐는 자체 하우스 아티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원주민 아티스트와 직접 계약을 체결, 판매된 직물 1m당 로열티를 업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한다³¹⁾. 위냐는 수익의 일부를 지역 원주민 고용 및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재투자하여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였다.

④ 디자인 해석 및 표현 : 가구 직물 패턴디자인은 밈

30) 위냐, Darwin Convention Centre-Foyer Refurb, (2025.10.12.)
winya.com.au/winya-projects-darwin-convention-centre

31) Winya : Driving Social Change, Territory M, 2025.07.18. (2025.10.12.)
territorym.com.au/winya-driving-social-change/

(Mim C.), 타라(Tara C.), 미카일라(Mikayla L.)와의 직접 계약을 통해 개발되었다. 위나는 「원주민 디자인 카탈로그」³²⁾를 통해 문화적 민감성과 안전성을 검토한 후, 작품을 디지털화해 마감재에 적용함을 밝히고 있다.

⑤ 사회·문화적 영향 : 이 협업은 컨벤션 센터의 방문객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라라키아지역 문화유산의 정체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는 공공공간을 매개로 지역 고유문화의 가시성과 접근성을 확장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공공예술의 실천적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기여하였다.

4-2-3. 입스위치 시의회 x 윌리 웨스턴³³⁾

지역 행정공간 및 공공환경 개선을 목표로 진행된 입스위치(Ipswich) 시의회 빌딩 리뉴얼 프로젝트는 부칸(Buchan) 그룹이 공간 인테리어 설계를, 제니스(Zenith)가 가구 제작을, 윌리 웨스턴(Willie Weston)이 직물을 담당하였다. 윌리 웨스턴은 원주민 아티스트의 작품을 토대로 패턴디자인을 개발해 [그림 6]와 같이 라운지 가구에 적용하였다.



[그림 6] 입스위치 시의회 빌딩 라운지³⁴⁾

① 협업 구조 : 입스위치 시의회와 윌리 웨스턴 간 프로젝트는 공공기관이 윌리 웨스턴과 원주민 아티스트와의 협업이라는 윤리적 경로를 통해 공공프로젝트에 원주민 디자인이 포함되도록 보장하는 공공조달 기반의 '다중 기획 모델'이다.

② 권리 및 소유 : 윌리 웨스턴의 직물은 원주민 아티스트 아푸아티미(J. B. Aputimi)의 작품을 기반으로, 직물 및 벽지 등 인테리어 제품으로 재구성 또는 복제

32) Winya가 제작한 원주민 스토리를 존중하는 방식의 프로젝트 가이드, (2025.10.12.) winya.com.au/indigenous-design-catalogue?rq=Indigenous%20Design%20Catalogue

33) Willie Weston 홈페이지 내용 정리, (2025.10.12.) www.willieweston.com

34) Willie Weston 홈페이지, (2025.10.12.) www.willieweston.com/projects/2025/2/19/ipswich-city-council-administration-building-by-buchan-group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IAC 모범 계약서대로 개발되었다. 모든 제품에는 아티스트명, 예술센터명, 작품명이 명기되어 있으며, 원주민 문화지식재산권(ICIP)과 호주 저작권법(1968)을 준수함이 명시되어 있다.

③ 수익 및 이익 분배 : 윌리 웨스턴은 원주민 아티스트와 라이선스 및 수익배분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된 원단 및 벽지 1미터당 라이선스 수수료를 분기별로 지급한다. 또한 2021 회계연도부터는 매 회계연도 종료 시, 전년도 순수익의 30%를 참여한 아티스트에게 환원함을 홈페이지를 통해 명기하고 있다.

④ 디자인 해석 및 표현 : 윌리 웨스턴은 아푸아티미의 작품 'Jilamara'의 패턴, 색채, 서사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패턴디자인으로 확장해 디지털 프린팅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디자인 수정은 인테리어 환경에 맞춘 색상과 비례 조정으로 한정했다.

⑤ 사회·문화적 영향 : 이 협업은 행정기관 공간에 원주민 예술을 적용해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부심을 강화하였고, 공무원과 방문객에게는 문화 인식과 유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디자인 조달 과정에 원주민 아티스트가 참여함으로써 입스위치 시의회의 「창의산업행동계획」³⁵⁾ 실현 방식을 제시하였다.

4-3. 사례 비교 및 논의

4-3-1. 사례 비교

(1) 협업 구조

기업 협업 사례에서는 브랜드와 원주민 아티스트가 직접 참여하는 공동개발, 공동제작, 라이선싱 중심의 참여형 창작 구조가 형성되면서 창의적 자율성과 상호 협의가 핵심이 되었다. 반면, 공공기관 협업은 윤리적 기업을 매개로 한 다중협업 구조를 통해 직접적인 참여보다는 제도적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기업 협업이 참여 중심의 실천적 모델이었다면, 공공기관 협업은 제도화된 윤리 운영 기반의 협업 모델로 구분된다.

(2) 권리 및 소유

기업과 공공기관 협업 사례 모두 원주민 아티스트와 지역 공동체의 문화지식재산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작품 표기에 작가명과 예술센터명을 병기한 것으로 나

35) Creative Industries Action Plan, (2025.11.12.) ipswich.qld.gov.au/About-Council/Media-and-Publications/Corporate-Publications/Strategy-and-Implementation-Programs/Arts-and-Cultural-Strategy

타났다. 그러나 기업 협업의 경우, 일부는 계약 조건 및 권리 귀속 범위 비공개에 따른 법적·제도적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공공기관 협업은 IAC 준수 및 권리 정보공개를 통해 제도적 명료성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공공기관 협업이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와 권리 체계 측면에서 윤리적 기준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였다.

(3) 수익 및 이익 분배

기업 협업은 브랜드와 아티스트 또는 예술센터 간의 직접 분배 구조를 통해 수익이 배분되었으나, 이익 배분 비율의 비공개성과 단기성 프로젝트 운영으로 인해 경제적 지속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기관 협업은 공공 조달 체계와 연계된 수익 순환 구조를 보였으나, 이 역시 단기 프로젝트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코스켈라와 같은 장기적 협업 사례를 제외하면, 원주민 예술가와 공동체에 미치는 경제적 환류 효과는 제한적이다.

(4) 디자인 해석 및 표현

기업과 공공기관 협업 모두 원주민 아티스트 및 공동체의 문화적 가치와 상징 체계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디자인을 개발하였으며, 협의와 검수 과정을 통해 문화적 오용의 위험을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스켈라, 킵앤코 사례에서는 공동체가 패턴 디자인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시각적 표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문화적 왜곡을 방지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협업 과정에서 원주민 아티스트의 사전 승인을 거쳐, 원작의 문화적 상징성과 의미적 맥락을 유지하려는 윤리적 실천과정이 확인되었다.

(5) 사회·문화적 영향

기업과 공공기관 협업 모두 원주민 예술의 사회적 가시성과 문화적 수용성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주민 예술이 일상 제품과 공공공간으로 확산되면서, 예술의 소비 행위가 문화적 존중과 인식 개선의 실천적 행위로 전환하는데 기여하였다. 기업 협업은 대중적 영향력을 통해 원주민 예술의 인지도를 높여 예술가들에게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자긍심을 제공하였다. 반면, 공공기관 협업은 공공조달과 문화정책 연계 구조를 통해 원주민 예술을 제도적 영역에 포함함으로써 문화 다양성과 사회적 포용성의 가치를 확산시켰다.

4-3-2 종합논의

사례 비교 결과, 호주 IAC는 텍스타일 디자인 협업의 기획, 계약, 제작,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윤리적 디자인의 제도적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업과 공공기관 협업 모두 공정한 거래와 문화적 권리

존중을 핵심 원칙으로 하였으며, 사전 동의, 출처 표기, 문화적 프로토콜 준수가 공통적으로 실행되었다. 다만, 실행 구조에서는 차이를 보여, 기업 협업은 참여 중심의 창의적 자율성을 확보한 반면 경제적 지속성과 계약 투명성의 한계를 드러냈다. 공공기관 협업은 제도적 신뢰성과 공공성을 갖추었으나 대부분의 협업이 단기성 프로젝트의 구조적 한계가 확인되었다. 디자인 해석과 표현에서는 모든 사례가 문화적 상징성과 의미 체계의 보존을 중시하였으며,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는 원주민 예술의 확산과 문화적 화해의 촉진 효과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IAC의 다섯 핵심 항목인 ①목적·적용 범위, ②윤리 및 문화권리, ③지적재산권 및 출처표기, ④상업계약 및 동의절차, ⑤거래관리 및 구제절차는 텍스타일 디자인 협업에서 실천 가능한 윤리 기준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는 원주민 공동체와의 예술 협업이 문화적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디자인 실천의 제도적 모델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호주 IAC를 중심으로 애보리지널 아트를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협업이 윤리적 디자인의 원칙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협업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IAC가 실제 디자인 실천 과정에서 제도적 윤리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IAC는 협업의 기획, 계약, 제작, 그리고 유통의 전 과정에서 사전 동의, 출처 표기, 공정한 거래, 문화적 권리 보호를 명문화함으로써, 텍스타일 디자인 협업의 윤리적 기준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기업 협업은 참여 중심의 창의적 윤리 모델을 실현하여 공동 창작과 문화 교류를 통한 자율적 실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반면, 공공기관 협업은 제도화된 책임 기반 윤리 모델로서 투명한 계약, 공정한 거래, 공공성 확보를 통해 문화윤리의 제도화를 구현하였다. 두 협업 유형은 모두 공동체의 자율성 존중과 문화적 해석의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삼았으나, 기업 협업은 계약의 비공개성과 경제적 지속성의 한계를, 두 협업 모두 단기성 프로젝트 구조라는 제약을 드러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텍스타일 디자인 분야의 윤리적 협업을 위한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윤리적 협업은 단순히 문화 자산을 보호하

는 수준을 넘어, 디자인의 전 과정에서 문화적 존중과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모든 단계에서의 사전 동의와 투명한 정보 공유, ② 공정한 계약과 실질적 수익 환원, ③ 공동체의 미학과 상징체계를 존중하는 문화적 해석의 윤리, ④ 지속 가능한 협업 관계 구축, ⑤ 문화 윤리의 제도화 및 교육적 확산이 그 핵심 원칙으로 제시된다.

이상의 논의는 기존 애보리지널 아트 연구가 주로 미술사적·정책적 접근에 한정되어 온 범위를 확장하여, 윤리적 디자인 실천과정을 제도적 틀로서 원주민 예술 협업에 적용해 해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러한 관점은 문화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텍스트일 디자인 산업의 구체적 기준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또한 IAC의 조항을 실증적으로 적용하여 문화 기반 디자인 협업을 평가할 수 있는 윤리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디자인 산업에서 문화 기반 협업의 윤리 표준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만 본 연구는 분석 사례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참여 공동체 간의 역량 격차에서 비롯되는 협업 구조의 복잡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장기적 협업이 가져오는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다양한 문화권에서 적용 가능한 보편적 윤리 디자인 모델로의 확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강병석, '경제적 개념으로서의 사회적 디자인 고찰', 한국디자인포럼, 2010
2. 강재원, '호주의 정체성에 나타난 원주민의 역사 문화유산의 가치와 확장성에 대한 문제점', 역사문화연구, 2013
3. 남미경, '디자인에 있어 지속가능성의 의미와 빅터 파파넥 디자인 사상의 영향 분석',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09
4. 이세리, '현대패션에 제기된 문화적 전유', Archives of Design Research, 2019
5. 한선주, '호주 원주민 전통미술의 문화관광

상품사례', 한국디자인포럼, 2006

6. 이연숙, '동시대 호주 원주민 미술과 사물의 상징 연구', 예술과 미디어, 2022
7. 최푸름, '원주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문단 설립 발표', 저작권동향, 2021.6.21.
8. Escobar A, Escobar A, 『Designs for the Pluriverse』, Duke University Press, 2018
9. Tunstall A, 『Decolonizing Design』, The MIT Press, 2023
10. W. Gunn, T. Otto, R. Smith, 『Design Anthropology』, Routledge, 2020
11. Fred R. Myers, 'Collecting Aboriginal Art in the Australian Nation', Visual Anthropology Review, 2006
12. Artslaw, 'Elcho Island (Galiwin'ku) artists, Mapuru, and Koskela', Artslaw, 2011.08.16.
13. Phoebe Blogg, Warlukurlangu Art Centre collaborates with NNT Uniforms on Indigenous-designed uniforms, NIT, 2024.1.16
14. Sally Tabart, 'A Landmark Collaboration Between Babbarra Women's Centre x Kip&Co', Design files, 2020.09.02.
15. AGWA, AGWA Annual Report, 2023
16. The Indigenous Art Code, 2024
17. www.artgallery.wa.gov.au.com
18. www.babbarra.com
19. www.copyright.com.au
20. www.ikuntji.com.au
21. www.kipandco.com.au
22. www.koskela.com.au
23. www.nnt.com.au
24. www.warlu.com